

教授計劃書의 作成과 活用

張 錫 祐

(仁川大 人文科學部長)

教授計劃이 없이 수업에 임하는 教授는 아무도 없다. 누구이건 나름대로의 教授計劃을 가지고 교단에 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教授計劃이라는 일정한 서식을 갖추어 文書化하는 데에는 教授, 學生, 大學當局의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序 言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大學評價班’이 仁川大學의 ‘教授計劃書’에 관심과 격려를 보여 주고, 「大學教育」誌의 편집자로부터 이에 대한 原稿化를 청탁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주저스러웠다. 왜냐하면 仁川大學이 실시하고 있는 ‘教授計劃書’의 制度化는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의 많은 大學들이 같은 성격의 제도를 채택·실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다만 한 가지 評價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매學期마다 개설되는 모든 科目의 教授計劃書를 學部別(單科大學別)로 印刷·製本하여 모든 學生들에게 배부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行政的으로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財政的인 부담도 따르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原稿의 수합에 따르는 事務的인 어려움이 적지 않은 성질의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現實的인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敎務行政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콜롬부스의 달걀’쯤에 비유할 수는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2. 教授計劃書의 意義

教授計劃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대한 理論이나 觀點에 따라 ‘教授計劃’, ‘學習指導計劃’, ‘教授—學習計劃’ 혹은 ‘教授計劃’ 등 여러 가지의 概念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편의상 ‘教授計劃’으로 사용키로 한다. 이러한 교수계획이 教授—學習活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갖는 意義는 무엇일까? 우선 몇 가지의 概念定義를 살펴보기로 한다.

“教授計劃이란 學習의 必要·要求와 目的들을 분석하고, 이 요구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授業實行體制를 개발하는 全過程으로서, 授業資料(敎材)와 授

業活動內容의 개발은 물론 수업의 施行과 改善, 그리고 學習評價의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Briggs).

“教授計劃이란 學習者의 行動에 구체적으로 意圖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 그로 하여금 더불어 相互作用을 하도록 하는 특정 環境의 상황을 明示하고 造成하는 과정이다”(Merrill).

“教授計劃이란 學習者 개개인에게 특정한 學習成果가 나타나는 것을 뒷받침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學習의 原理와 理論을 활용하여 授業의 諸事象을 體系적으로 계획하는 과정이다”(陳潤教).

‘教授計劃’은 한마디로 教授—學習活動을 위한 計劃이다. 教授—學習 활동을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教授 혹은 教師)이 이의 圓만한 수행을 위해 ‘스스로 設定하는 計劃’이다. ‘스스로 設定하는 計劃’이기에 教授計劃 속에는 이를 작성한 教授(教師)의 教科觀(혹은 教材觀)이 반영된다. 이 과목(혹은 講座)이 학생들의 專攻教育이나 教養教育 혹은 教職教育의 영역에서 왜 필요하며,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 이 과목의 指導를 통하여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教育目標),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內容(教育內容)’을 ‘어떤 方法(教育方法)’으로 지도해야 하는지, 나아가 指導의 成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教育評價) 등에 관한 자기 스스로의 見解가 반영된다.

教授計劃書의 작성은 교수의 고유 權限에 속한다. 그것은 教授—學習活動을 이끌어 갈 권한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의 임무 수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필연적 作業過程이며, 자신의 教科觀에 따라 학생들을 새로운 學問의 세계로 이끌고 갈 意志를 담은 設計의 過程이기도 하다.

동시에 교수계획서의 작성은 教授의 義務에 속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수가 教授—學習活動을 이끌어 가는 일은 기실 권한이라는 측면보다 義務 또는 責任이라는 측면이 더욱 무거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수는 자기가 맡은 과목의 指導를 통해 學生들에게 한 분야의 專門人 혹은 한 사회의 指導의 人間을 육성하는 責任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

서 볼 때 教授計劃書의 작성은 教授의 책임과 의무를 圓滿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기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3. 教授計劃書 작성의 效果

‘教授計劃’이 없이 授業에 임하는 教授는 아무도 없다. 누구건 나름대로의 교수계획을 가지고 教壇에 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教授計劃書’라는 일정한 書式을 갖추어 文書化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서화된 교수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效果를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教授의 측면에서 본 效果

教授計劃書 작성의 效果를 教授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의 사항을 꼽을 수 있겠다.

첫째, 교수계획의 明瞭化이다. 教授—學習에 대한 계획이 나름대로 설정된다 할지라도 ‘머리’ 속에 그려져 있는 상태보다는 文書化되었을 때 보다 淸료해진다. 教授計劃의 文書化나 文章化는 개략적이던 계획을 보다 體系化시켜 준다. 文章表現은 言語表現의 경우보다 淸鮮 論理性을 요구한다. 文章表現의 과정은 바르 思考의 過程이며, 따라서 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쓰게 된다. 그리고 文章화된 결과는 스스로의 思考를 정리하는 데에도 크게 공헌한다.

둘째, 교수계획의 綜合化·合理化이다. 教授—學習計劃을 ‘머리’ 속에 그려둘 때에는 교수계획이 갖추어야 할 여러 條件들이 골고루 고려되기 어렵다. 대개의 경우 教育內容에 대하여는 충분히 고려되지만 教育目標에 대하여는 흔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教授計劃書의 書式이 요구하는 여러 條件들을 ‘채워 넣으려’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게 된다. 이를 통하여 教授—學習計劃을 綜合化하고 合理化할 수 있게 된다.

셋째, 教授—學習活動에 대한 責任意識의 형성이다. 교수계획을 문서화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했을 때, 教授는 당연히 心理的 負擔을 갖게 된다. 우선은 文書화된다는 사실에서 오는 부담

감이 있고, 다음으로는 문서로 배부되었기 때문에 오는 부담감이 있다. 前者의 부담감은 보다 알찬 教授計劃을 수립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後者の 부담감은 보다 성실한 教授—學習活動을 수행하게 하는 心理的 壓力이 될 수 있다.

文書화된 教授計劃은 교수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제시한 하나의 '約束'이다. 학생들은 당연히 교수의 약속에 기대를 걸면서 한 학기 동안 教授의 指導에 따른다. 당연한 귀결로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이 끝났을 때, 教授의 授業活動 結果를 評價하게 된다. 教授의 學生에 대한 評價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학생의 教授에 대한 評價는 곧바로 點數化되거나 發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認識은 教授—學習活動에 대한 責任意識을 형성해 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

2) 學生의 측면에서 본 效果

教授計劃書의 印刷·配付가 學生들에게 주는 效果로서는 다음 사항을 꼽을 수 있겠다.

첫째, 教授의 性格 및 學習過程에 대한 理解이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새로운 科目이 어떤 性格의 과목이며, 이를 통하여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內容을 어떤 方法으로 공부하게 되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教授의 性格과 學習過程에 대한 事前理解는 학생들의 學習方向을 바르게 잡아 주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과목에 대한 關心과 學習動機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自律學習·準備學習에 대한 안내의 역할이다. 앞으로 배울 學習內容이 무엇이며, 이에 필요한 教材나 參考資料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제시된 課題는 무엇이며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資料를 수집하며 學習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학습활동을 할 때 보다 능률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科目選擇에 대한 案內의 역할이다. 專攻選擇 과목이나 教養選擇 과목 또는 기타의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자 할 때, 文書화된 教授計劃書는 귀중한 案內資料가 된다. 특히 주어

진 科目名만으로는 그 과목의 性格이나 內容을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역할은 더욱 소중하게 된다.

3) 大學當局의 측면에서 본 效果

教授計劃書를 문서화하고 이를 인쇄·배부하는 일이 大學當局에 미치는 效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學事行政의 定型化이다. 大學行政의 核心은 1次的으로 學事行政에서 찾아야 한다. 학사행정이 體系化되지 못하면 大學教育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漂流하게 된다. 전통이 확고하고 학사행정의 질서가 확립된 大學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아직 年輪이 짧거나 급격한 量的 擴大로 인하여 新設學科가 많은 대학 그리고 經歷이 짧은 教授들이 많은 대학에서는 學事行政의 定着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教授計劃의 文書化는 학사행정의 핵심인 教科授業의 運營方向을 바로잡는 데 기여함으로써 學事行政을 定型化할 수 있게 해준다. 仁川大學의 경우, 教授計劃書의 印刷·配付 制度化는 開校 4년째부터였으며 실제로 學事行政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教授—學習指導의 充實化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거니와 교수계획서의 인쇄·배부는 1次的으로 教授計劃書의 작성을 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결과 教授—學習活動도 충실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 仁川大學의 경우 이 制度의 실시 이후 교수계획서가 훨씬 치밀해졌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教授—學習活動에 연계되었을 것임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셋째, 學事管理上의 편의성을 들 수 있다.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학사관리의 필요에 의해 教授—學習活動에 대해 특별한 '권장사항'이 주어질 경우가 있다. 예컨대 學期中 보다 많은 課題의 제시를 권장한다거나 혹은 수시로 많은 中間 評價를 권장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 教授計劃書의 作成 과정에서 미리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요구한다면 비교적 무난하게 처리될 수도 있는 것이다.

4. 敎授計劃書의 具備條件

敎授計劃書가 그 구실을 다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는 앞에서 예든 바 있는 몇 가지의 條件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敎授目標, 敎授內容, 敎授方法 및 評價方法과 기타의 參考事項이 그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敎授目標의 明瞭化

敎授計劃書의 作成에 있어서 가장 먼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敎授目標’의 설정이다. 교수목표의 설정은 바로 과목의 基本性格을 정립하는 일이며, 따라서 敎授—學習指導의 基本方向을 설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대학에서 다루어지는 대부분의 과목은 學問的인 性格이 비교적 뚜렷하다. 따라서 指導의 方向도 비교적 분명히 주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敎授의 學問的 觀點이나 敎育的 意圖에 따라 서로 다른 目標의 설정이 가능해진다.

우선, 大學敎育의 本質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학교육을 ‘엘리트敎育’으로 파악하여 사회의 指導的 人格을 육성하는 데 力點이 두어져야 한다고 보는 경우와 ‘大衆敎育’으로 파악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高級人力을 양성하는 데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보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觀點의 차이는 그가 담당한 과목의 性格이나 必要性을 이해하는 데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로, 專攻學問의 性格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다. 전공학과와 學問的 성격이 어떠한고 社會發展이나 科學技術의 發達過程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比重이 어떠한가, 학생들의 人間成長에 공헌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파악하느냐에 따라, 담당 과목의 指導方向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셋째로, 당해 학교의 敎育理念이나 당해 학교의 敎育目標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다. 대학의 設立理念, 대학의 傳統과 敎育의 與件, 學科 스스로가 설정한 敎育目標, 그리고 학생들의 質的 水準이나 卒業 후의 일반적인 進路選擇 경향 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이러한 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컨대 專攻領域의 學者나 專門研究人을 양성하는 데 力點을 두고 있는 경우와, 卒業 후 職業을 구하는 데 유리하도록 지도하는 데 강조를 두는 경우는 모든 과목의 指導方向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담당 과목에 대한 目標設定은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위에서 方向이 잡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敎育內容의 어느 부분에 보다 比重을 두어야 하며, 어떤 敎育方法을 택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敎育의 成果를 어떤 基準에 의하여 評價해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2) 敎授要目の 具體化

敎育內容, 敎育方法 및 評價方法 등은 概念의 수준에서는 구분지을 수 있지만, 실제의 敎授—學習 過程에서는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구분짓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를 상호 연관시켜 敎授要目(syllabus)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敎授要目の 작성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敎育의 內容이다. 여기서 설명하는 敎育內容은, 知識이나 理論일 수도 있고 技術이나 技能일 수도 있으며 活動이나 經驗일 수도 있다. 敎育內容의 제시는 지나치게 구체적일 필요는 없으며, 內容의 概要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능한 한 간결한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밝혀야 할 것은 敎育의 方法이다. 敎育의 內容에 따라 예컨대 講義, 實驗·實習, 세미나, 現場實習 등 여러 가지의 敎育방법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指導의 과정에서 활용될 敎材의 內容, 副敎材나 參考資料의 內容 또는 각종의 學習補助資料나 實驗·實習 器材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각종 學習課題의 제시나 評價의 실시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中間 考查나 學期末 考查의 실시 계획은 물론이거니와 수시로 제시될 과제의 종류나 내용 등도 사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이와 함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指導에 따르는 進度計劃의 수립이다. 진도계획은 敎授—學習指導에 필요한 時間量에 대한 예측과 실제 확보가 가능한 指導時間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教 授 計 劃 書

1985學年度 第2學期

教 科 目 名	學 點	週 當 時 間	擔 當 教 授	對 象 學 科 · 學 年				
國民倫理(Ⅱ)	2	2	殷 千 基	電氣, 機械, 建築, 工經, 美術, 家政 學科 1學年				
教 授 目 標	共產主義理論과 現代의 急進思想 및 北韓共產主義의 特徵을 講究, 發表, 討論함으로써 이데올로기 批判能力을 涵양함과 동시에 우리 民族의 生存과 統一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健全한 價値觀과 倫理觀, 民族國家에 대한 愛國心을 고취시키는 데 目標을 둔			教 材 名	國民倫理			
				著 者	國民倫理學會			
				出 版 社	螢雪出版社			
				總 Page	483			
月 別	週 別	期 間	教 授 內 容	教 材 Page	參 考 書	補 助 資 料	課 題	備 考
9	1	9.2~9.7 9.2 개강	講義方法 및 參考書 紹介 共產主義의 背景과 哲學	266~281	①國民倫理 編纂委員會 新國民倫理 大旺社 1984	極東問題研 究所, 共產 主義 批判 (1983)		
9	2	9. 9~ 9. 14	共產主義 經濟理論 및 共產主義 政治 理論	282~306	②金致河, 政治教育研 金善亨, 現 代社會와 이데올로기 大旺社 1983	究會, 共產 主義		
9	3	9. 16~ 9. 21 제 1 학년 병영집계 교육기간			③閔丙天編 北韓共產主 義, 大旺社 1983			
9	4	9. 23~ 9. 28	共產主義戰略戰術 및 共產主義의 變遷 과 分裂	307~338	④國土統一 院, 北韓概要, 1984		共產主義理 論 및 急進 理論중擇一 (9/28까지) 200×30	
10	5	9. 30~ 10. 5	現代急進思想의 概念과 範圍 現代急進思想과 마르크시즘	339~348	⑤ 金甲喆, 北韓共產主 義理論과實 察, 文祐社 1984	國民倫理學 會, 現代急 進思想論文 集(1984)		
10	6	10. 7~ 10. 12 <10. 10 (목) 수 업일수 1/3선>	現代急進思想 內容의 共同特徵, 現代急進思想에 대한 槪疑	349~358	⑥閔丙天, 韓國防衛論 고려원 1983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를 토대로 하여 仁川大學이 채택·사용하고 있는 教授計劃書의 例를 보면 앞의 표와 같다.

5. 結 言

教授計劃書는 그것이 제아무리 合理的으로 잘 꾸며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써 教育의 成果나 質의 水準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教育의 성

과나 질적 수준의 向上을 위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教授—學習指導 그 자체의 수준과 充實度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본다면 教授計劃書는 매우 形式的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한 論理에도 불구하고 教授計劃書는 보다 質 높은 教授—學習指導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要因’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보다 바람직한 教育成果에로 향하는 出發點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否認될 수는 없는 것이다. *

子曰 事父母 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을 섬기면서 諫言을 올릴 때는 부드럽게 해야 하며, 부모님께서 간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시더라도 더욱 恭敬하여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아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里仁篇, 論語>